

# 목 차

## I. 사업의 개요 3

## II. 부문별 사업실적 9

1. 상공 진흥 및 회원교류 활성화..... 11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1
3. 국제통상 진흥 및 민간경제교류 확대 ..... 26
4. 회원기업 경영지원 ..... 29
5. 자격검정사업의 내실화 ..... 33
6. 인력개발사업 다각화..... 35
7. 유통물류사업의 확대 발전 ..... 37
8.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경영 지원..... 39

## III. 유형별 사업실적 41

1. 상공진흥행사 ..... 43
2. 제회의 ..... 43
3. 조사·연구·건의 ..... 51
4. 국제협력 ..... 58
5. 정보화사업 ..... 61
6. 상공회사업 ..... 63
7. 자격검정사업 ..... 70
8. 인력개발사업 ..... 72
9. 유통물류사업 ..... 74
10. 지속가능경영 지원사업 ..... 75

## IV. 전국상공회의소 주요 사업실적 79





# I. 사업의 개요



성공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 I. 사업의 개요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회원 만족도 제고를 통한 상공회의소 위상 강화’를 2007년 사업목표로 정하고 △경제계 대표역할 및 회원 네트워킹 강화 △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 △기업애로의 해소 및 경영지원 강화 △사회전반의 친기업정서 확산 △민간경제협력 증진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인력 양성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7년 12월의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경제활성화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들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제안하는 한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등 대통령후보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통령후보의 정책비전을 듣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실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공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공인간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공진흥사업과 기업인 교류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가 경제계를 대표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신년인사회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및 경제계, 주한외교사절 등 1천여명의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정부각료 및 각계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개최한 CEO 조찬간담회에는 연인원 3천여명의 CEO가 참가하였고, 제주에서 개최된 제32회 최고경영자대학에는 370여명의 주요기업 CEO가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상공회의소는 제34회 상공의 날 기념식, 제13회 싱글PPM품질혁신전진대회, 제14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제6회 공정거래의 날 등의 행사를 주최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기업과 기업인을 포상·치하함으로써 기업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였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사·연구·건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의 조기 비준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에도 앞장섰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안정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율·유가 등 대외 불안요인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애로 및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특히 샌드위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글로벌 M&A 활성화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고, 국회제류 경

## I. 사업의 개요

제법률안에 대한 기업의견, 기업관련 세제 개선과제, 지역금융 활성화방안,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대책 등 건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관련 제도의 합리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의 제·개정 작업시 심도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기업의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미국·일본의 규제개혁사례 연구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도 힘을 기울였다.

한편 2006년에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미 FTA 협상타결을 지원하여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는 데 일조한 데 이어 2007년에는 한·미 FTA가 국회에서 조기에 비준될 수 있도록 국민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EU 등 다른 지역과의 FTA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6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지원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이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남북경협민간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투자환경 및 대북진출 관련 정보의 교환, 남북경협 관련 애로의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친기업 정서의 확산을 위한 경제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 및 윤리경영 지원에도 앞장섰다. 기업현장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이슈를 윤리경영 100문 100답으로 정리, 발간하여 회원기업에게 배포하였고, 나눔경영의 실천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사 1복지시설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1,000여건의 결연을 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사랑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노사관계 및 인력문제에서도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정규직 관련법률의 시행과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였고, 노사발전재단,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노동정책에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를 창립하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식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관광산업의 활성화,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지적재산권 및 산업보안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도 수행하였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민간차원의 경제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중국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방한한 외국인수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교역과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동·동남아·동유럽 등 자원 부국 및 신흥시장에 총 14회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 대한 투자환경 및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투자 및 해외거래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 국제통상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global.korcham.net>)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기업애로 상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연간 58회의 세무·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회원기업 임직원 1,9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전국 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약 1,700건의 법률·노무·세무 관련 경영상담과 회원기업 애로를 처리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구에 설치된 상공회에서는 640회의 기업실무자 교육과 15,000여건의 경영상담, 160여회의 구청장·세무서장 등 지역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같은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상공회 회원수는 2007년말 현재 46,920개사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정보DB인 코참비즈는 34만개 기업정보, 190만개 상품정보를 비롯하여 기업의 재무정보, 거래정보, 채용정보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지식멘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회원기업의 지식경영을 지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 비즈니스 포털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품질경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전개하였다. 중소기업들의 싱글PPM 품질혁신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현장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395개의 기업에 대해서 품질경영 인증심사를 실시하였다.

## I. 사업의 개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부산 등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는 고교 졸업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과정인 양성훈련을 통해 3,728명을 교육한 것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컨소시엄훈련 13,757명, 온라인을 통한 이러닝훈련 30,409명, 기타 직무능력향상훈련 2,758명 등 총 50,652명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실업해소와 기능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수료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설기관인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지난 5월 유통표준코드 국제기구인 GS1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세계 73개국의 GS1 회원기관 및 글로벌기업의 대표 313명이 참가하여 무선인식(RFID) 기술을 비롯한 미래 유통물류 분야의 비즈니스 혁신 기술표준을 논의하였다. 유통물류진흥원은 차세대 바코드로 부각되고 있는 RFID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RFID성능시험평가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RFID 국가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밖에 유통물류진흥원은 100만개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자카탈로그DB인 코리아넷을 통해 회원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5년 설립한 지속가능경영원은 우리 기업의 환경경영과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난해에 기후변화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지속가능경영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제2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을 표창하였다.